

“사기치지 마라. 문재인 정부”

민주노총 8만 조합원,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언... 노조, 삼성 직고용 약속 이행 압박 결의대회 열어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의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노동 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확대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노동법 전면개정 2018년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사기치지 마라 문재인 정부’라고 쓴 손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6월 30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최저임금법 개악 폐기, 하반기 총파업·총력투쟁 선포 2018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 금속노조 조합원 6천 명 비롯해 민주노총 조합원 8만 명이 참가했다.

이날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앞서 금속노조는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본관 앞에서 ‘재벌 적폐 청산 비정규직 철폐, 삼성 직고용 약속 이행 촉구 금속노조 결의대회’를 열었다.

김호규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법원은 다뤄야 할 쟁점이 많아 삼성 자본의 노조 파괴자들을 구속할 수 없다고 한다. 노조파괴에 관여한 자본과 경찰 검찰 법원 등 모든 당사자 구속을 18만 금속노조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며 “이 선언은 선언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에서 활동하는 이종란 노무사는 “2015년 7월 삼성 그룹은 이재용의 그룹승계를 위해 박근혜 정권과 유착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했다. 그룹 승계에 인도한 삼성은 합병 일주일 후 ‘삼성직업병 조정위원회 권고안’을 무시하고 삼성 마음대로 피해자를 선별해 보상하겠다고 발표했다”라며 분노했다.



결의대회 마지막 순서로 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와 삼성지회, 삼성지회 CS모티스분회, 삼성웰스토리지회 대표자들이 연단에 올라 투쟁 결의를 밝혔다.

리두식 지회장은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삼성에게 금속노조를 인정하고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직고용을 요구한다. 7월 14일 직고용 이행과 단체협약 체결 삼성 자본의 정경유착을 끊어내는 총파업을 벌이고 삼성 자본과 청와대 앞으로 갈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결의대회를 마치고 노조 조합원들은 광화문으로 이동해 2018년 비정규직 철폐 전국노동자대회에 참가했다.

이날 전국노동자대회에서 민주노총은 “지금 최저임금법 개악이 심각한 상황이다. 2019년 1월부터 적용되는 신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인상은 무력화됐다”라며 “문재인 정부는 속도조절론까지 내세우며 3년 내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사실상 폐기했다”라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권은 비정규직과 무기계약 노동자를 저임금 노동자로 고착화하는 표준임금체계모달을 강행 추진하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하고, 노동시간 주 52시간 상한제는 위

반 시 6개월 차별 유예 등으로 시행도 하기 전에 효과가 사라지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부 노동정책을 강력히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차별 없는 정규직화 ▲민간부문 불법파견 철폐와 원청 사용자징 강화 ▲최저임금 개악 폐기와 임금 개악 중단 표준임금체계모달 폐기, 차별 없는 임금원칙 실현 ▲원·하청 불공정거래와 편법 도급 근절 ▲불평등 양극화 주범 재벌체제 해체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노조법 2조 개정근로자와 사용자 개념 확대, 노동 약법 철폐를 요구했다.

김수익 노조 기아차비정규직지회 지회장은 금속노조 비정규직을 대표한 투쟁사에서 “현대·기아차 자본은 노동부와 검찰의 비호 아래 아무 처벌을 받지 않고 불법파견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노조를 파괴한 재벌 편에서 있기 때문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명환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민주노총이 2018년 하반기 총파업 총력투쟁으로 노동 적폐 청산 노동기본권 전면 보장 비정규직 철폐를 이루내 촛불항쟁으로 시작한 한국 사회의 진정한 사회 개혁을 완성하겠다”라고 선언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산업범위 개악 철폐 투쟁은 나와 이웃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이며, 재벌개혁 투쟁은 나와 이웃이 삶을 위해 세상을 바꾸는 투쟁이다”라고 선언했다.

전국노동자대회를 마친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청와대와 국무총리 공관, 헌법재판소 방향으로 나눠서 행진했다. 금속노조는 종로와 안국사거리로 거쳐 헌법재판소까지 행진했다.

“살려달라. 벌써 서른 번째다. 힘을 모아 달라”

김주중 쌍용자동차지부 조합원 노제 엄수

“해고자 복직,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하라”

쌍용자동차가 2015년에 합의한 해고자 복직 약속을 이행하지 않아 또 한 명의 해고자가 목숨을 잃었다.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는 자본은 정리해고로, 국가는 폭력으로, 대법원은 재판거래로 김주중 조합원을 죽였다며 분노했다.

금속노조와 쌍용자동차지부는 6월 29일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공장 앞에서 고 김주중 조합원의 노제를 거행했다. 김주중 조합원은 2009년 해고 이후 밤낮으로 일해 생계를 유지하며 복직 투쟁을 계속했다. 고인은 쌍용차가 2015년 합의한 복직 약속을 지키지 않자, 6월 27일 스스로 생을 마쳤다. 김주중 조합원은 쌍용차 정리해고의 서른 번째 희생자다.

김주중 노조 쌍용차지부장은 “지난 10년 죽음만은 막아달라며 자본과 장권에 읊소했지만 동지를 지키지 못했다. 정말 미안하다”라며 결국 울음을 보였다. 고인의 삶을 보고하던 김주중 지부장은 “살려달라. 벌써 서른 번째다. 모두 힘을 모아 달라”라며 울음을 멈추지 못했다. 김주중



지부장은 “김주중 동지의 뜻을 이어 해고자 복직과 국가폭력 책임자 처벌, 손해배상 가압류 철회를 위해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다”라고 결의를 밝혔다.

김효규 노조 위원장은 “얼마 전 간담회에서 본 고인의 얼굴과 눈길도 아직도 가슴에 맺혀있다”라며 김주중 조합원을 기억했다. 김효규 위원장은 “잘 가시라. 남은 자들은 동지의 희망을 날카롭게 기억하며, 동지가 꿈꾼 세상을 향해 무벽 무벽 걸어가겠다”라고 고인을 추모했다.

송경동 시인은 고 김주중 조합원에게 “추모의사가 아니라 분노의 시를 바친다”라며 추모 시를 읽었다.

“모두가 나서서 이제 그만이라고 외쳐야 한다. 죽음을 생선하는 저 공장을 멈춰야 한다. 눈먼 자본가들의 탐욕과 특권을 드러내는 촛불은 다시 타올라야 한다.”

고인의 형 김 이무개 씨가 “이런 고통과 불행은 이번이 마지막이었으면 한다”라며 유족을 대표해 인사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 조합원 추모객들은 고인에게 절을 올리며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노제를 마칠 무렵 동료 해고 조합원이 쌍용차 공장을 향해 국화꽃을 던졌다. 이 조합원은 “너 화들이 죽었다”라며 울부짖었다. 회사는 공장 문을 잠갔다.

고 김주중 조합원은 평택에서 태어나 쌍용차 평택공장에서 일했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공장점거 파업에 참여했다. 국가폭력에 의한 트라우마와 생활고가 고인을 괴롭혔다. 복직 투쟁 10년, 고인은 끝내 살아서 공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평택에 있는 선산에 영면했다. 유족으로는 노모와 부인, 아들 두 명이 있다.

노제를 마칠 무렵 동료 해고 조합원이 쌍용차 공장을 향해 국화꽃을 던졌다. 이 조합원은 “너 화들이 죽었다”라며 울부짖었다. 회사는 공장 문을 잠갔다.

“현중 5천 명 일방 무급휴직, 대안 아니다”

현중지부, 구조조정 중단 촉구 국회 기자회견... “정규직 내몰고 비정규직 채우는 흉계 중단”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가 6월 27일 국회에서 현대중공업이 강행 중인 구조조정을 비판하고, 해양사업부 소속 5,000여 노동자의 고용안정 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6월 27일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 자본이 노조와 협의 없이 해양플랜트 부문 무급휴직과 구조조정 계획

을 내놔다고 비판했다. 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전환배치, 순환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방법이 있다”라며, “현대중공업 자본은 무급휴직을 유도하기 위한 조합원 협박을 멈추라”라고 요구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는 기자회견에서 현대중공업 자본이 ‘노동자의 높은 임금이 해양플랜트 경쟁력 감소의 원인이다’라고

떠드는 주장을 반박했다. 지부는 “해양플랜트 부문 경쟁력 감소는 비정규직 중심의 고용구조, 불안정한 생산관리, 공정 지연과 하자 발생이 원인이다”라고 밝혔다. 지부는 “안정적으로 일하는 숙련 조선 노동자 확보가 더 중요한 상황이다”라고 반박했다.